

보성군, 참다래 전문생산단지 조성 박차

군, 농림부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 20억원 확보 조성지구 일원 63ha 관정·경작로 포장사업 등 추진

보성군이 정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과실 산업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

15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과실전문생산단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억7800만 원을 지원 받게 됐다.

과실전문생산단지 사업은 지역 대표성이 있고, 집단 재배되는 과수 품목의 용수원을 개발하고, 개별 과원에 용수 공급 시설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다.

국비가 80% 포함된 전액 보조사업으로 과수를 생산하는 전국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했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상 지구는 조성지구(조성, 은곡, 신월) 63ha로 관정, 저수조, 용수로, 진입도로, 경작로 포장사

업 등을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한다.

대규모 사업비 확보로 극심한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 영농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은 지역특산물인 참다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비 20억 원을 투입해 참다래 친환경 유통센터를 설치했다. 차별화된 고품질 참다래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2억 원의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비를 조성면 대곡리와 축내리 일대에 지원해 용수 공급과 배수로 및 경작로 설치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



보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과실전문생산단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억7800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참다래 선별작업 모습. (보성군 제공)

게 대 가뭄과 집중 호우에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에는 320여농가가 209ha에

서 참다래를 재배, 전국 생산량의 20%에 육박하는 연간 4165t을 생산하고 있다. 이 중 20t 정도는 매년 미국으로 수출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기자 노트

고흥군과 의회는 소통하고 상생해야



주 각 중 전남지역본부 기자

최근 고흥군의회는 추가 경정예산안 삭감으로 고흥군과 의회뿐 아니라 군민들까지도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 2일 고흥군의회는 제 272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626억6000만원에서 순증액 404억 6500만원 중 1960만 원을 삭감한 404억 4540만 원을 승인하고 제1회 추경에 기반영원 4개의 대규모 시책사업 222억 500만 원을 집행부로부터 사업대상지 전면 변경안으로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행정절차상 문제 등으로 삭감 결정했다.

이번에 감액제출된 사업장은 ▲고흥 분계 입체교차로 설치(119억2700만원) ▲속박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있는 군도1호선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로 체계개선(28억 3900만원) ▲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심사위원회를 외부위원 없이 공무원으로만 편법으로 구성, 군민과 군의회의 의견 수렴과 사전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11일간의 조정기간 동안 검토와 협의가 가능했음에도 원안 가결만을 주장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편성 자세에 대해 절차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수정의결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송규근 군수는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하지 않겠다"면서 불변한 심기를 나타냈다.

또한 군은 읍면을 돌며 이장회의 등을 통해 추경안 삭감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의회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등 전면전 양상이다.

항간에는 군수가 민주평화당 소속이고 대다수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포장(24억3000만원)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와 힐링해수목욕탕 녹동 휴게소 등을 군민과 관광객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책정된 국도27호선 녹동휴게소 입체교차로 설치(50억원) 등을 민선 6기 때인 금년 1차 추경에서 확정되었으나 민선 7기 들어 사업비가 과도하고 시급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전액 감액하여 군수 읍면순방시 건의받은 생활민원과 주민숙원사업, 신규 관광자원 개발용역 등으로 재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의회는 집행부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고흥군 재정투자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지방재정

gju@kwangju.co.kr



전남 구례·곡성·담양군과 전북 순창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들로 구성된 '장수벨트행정협의회'는 지난 12일 '제10회 구곡순담 100세 문화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고흥군,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내달 16일까지 시설물 설치비 등 농가당 최대 2000만원 지원

고흥군은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규모는 농가당 최대 2000만원(자부담 20%)이다.

지원 신청 대상자는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직계존속(부 또는 모 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신청자 본인의 영농경력이 3년 이내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직계존속이 승계한 영농기반에 비닐하우스·자동제습시스템·양액제

배시스템·용복합 등 각종 농업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부모세대 영농기반에 청년세대 아이디어가 결합한 형태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가업승계 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군 심의회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구곡순담 100세 문화한마당' 노인 등 2000여명 참석 성료

전남 구례·곡성·담양군과 전북 순창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들로 구성된 '장수벨트행정협의회'는 지난 12일 '제10회 구곡순담 100세 문화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구례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4개 지역 노인들과 관람객 등 2000여명이 참석, 장수벨트지역 문화축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곡성군 드림스타트, 초등생 창의력 향상 코딩프로그램 운영

곡성군 드림스타트는 학령기 아동(3-6학년)의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주2회 코딩프로그램(사진)을 운영한다.

코딩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다른 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 언어로 변경해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딩교육은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코딩교육이 2019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군은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을 아동의 흥미에 맞춘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이모



티콘 만들기, 3D프린팅 등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구성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다양한 코딩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사고력을 키우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역량 배양과 진로 탐색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조정가)
- 문의. 010-6834-7400

나주, 전원주택 부지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거리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문의. 010-3605-5000